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증거하는 중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였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늘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들이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6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말씀하셨다 (요 4:24).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표현했다(딤후 6:16).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지만,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 주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제 죄인들은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믿음은 행위와 구별된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었다(롬 3:20-22). 그러므로 로마서 3장은 이 문제에 결론을 내린다. 로마서 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로마서 4:5에서 “**일[행위]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했다. 믿음은 빈손과 같다. 이것 없이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나 이것 자체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자랑할 뿐이다.

이 믿음은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통해 생기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은혜를 주셔서 영생에 이를 택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6:37)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셨다(요 6:44). 또 사도행전 13:48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증거하였다. 택자들만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8-9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했다고, 또 로마서 9:16에서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과 영

생을 위해 필수적이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항상 있어야 한다.

참 믿음은 소망을 포함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18-21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했다.

실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 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시 39:5-7).

전도서 1:2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다.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사 40:6-8).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인 천국의 소망을 말하였다(벧전 1:3-4).

히브리서 11:16은 말하기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간직된 그 성을 소망한다.

우리는 또 몸의 부활을 소망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몸의 부활에 대해 밝히 증거하였다(고전 15:42-44, 51-52).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단지 죽은 몸의 회생 정도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은 자기

의 죽음을 구차히 피하려 하지 않았다(히 11:35).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현재의 몸의 회생 정도가 아닌, 참으로 복된 부활의 몸이 있다.

소망은 인내를 만든다. 소망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다. 또 그 인내는 우리가 온전한 인격자로 성숙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라고 말했다(롬 5:3-4).

셋째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고 참된 소망은 인내를 통해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결실이다. 주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눅 8:15). 참된 믿음과 소망은 좋은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할 것이다. 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들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어느 날 불타버릴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내세지향적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랑은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행위가 없이 믿음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입술의 고백이며, 소망을 말하는 것도 모순일 뿐이다. 사랑이 수반될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 진실됨이 증명될 것이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되고 영생을 얻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음이 된다.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소망해야 하며 몸의 부활을 믿고 소

망해야 하며 영생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우리의 소망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은 고난을 참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은 참된 믿음과 소망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진실성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형제를 사랑하자.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검해보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는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는가?

주일오후설교 **공의와 사랑**

[레 19:13]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누탈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하나님께서서는 또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압제하다’는 원어(아차크)는 ‘압제하다, 강탈하다, 속여 빼앗다’는 뜻이다. 그것은 폭력과 위협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우리는 폭력으로 남을 해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너는 누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누탈하다’는 말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은 앞의 명령 속에 내포된 바이기도 하다고 본다. 강도짓은 도적질보다 더 나쁜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너는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일이든지 매월이든지 주인이 일꾼들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제 때에 주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으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면, 그 값은 정중히 그 날 혹은 그 시간에 지불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다. 비록 귀먹은 자는 그의 저주를 듣지 못하고 소경은 그 장애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보시며 판단하시고 보우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먹은 자나 소경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첨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하신 것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본절과 16절과 18절에,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명령의 근거와 권위를 증거한다. 이 명령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이다. 영원자존자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들을 내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들을 성심으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은 사람들 상호간에 생긴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는 일이다. 그러므로 재판에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재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일에서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

[16절]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남을 논단하지 말라’는 원어(라킬)는 ‘남을 중상(中傷)하는 자, 즉 거짓 소문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라는 뜻이다. 거짓 소문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참으로 나쁜 일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와 집사의 아내들의 자격에 대해 말하면서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다(딤후 3:11). 참소하는 것이 거짓말로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웃이 잘못을 하면 그를 책망할 수 있지만, 그를 죽음에 내몰 정

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을 깨우치고 고쳐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듯이, 성도의 책망은 상대방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깨우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책망은 이 정도의 선까지이며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다.

[17절]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責善)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미움은 살인의 시작이다. 미움은 마음의 살인이다(요일 3:15).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責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웃이 잘못을 행할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이웃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뜻이다. 참된 사랑은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또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 공의로 보복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주 예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39-42),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훈하셨다(눅 6:27-28). 사도 바울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교훈하였다(롬 12:17, 19-20).

하나님께서서는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우리는 남을 원망

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달게 받고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은, 주께서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두 개 중 두 번째의 계명이다(마 22:35-40).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다(롬 13:10).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이웃을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빼앗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의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도적질보다 더 나쁜 악한 일이며 그렇게 얻은 이익은 복이 되지 못한다. 셋째로, 우리는 일을 맡긴 자에게 그 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약속대로 정한 때에 주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은 그 샅을 간절히 기다린다. 넷째로, 우리는 못 보고 못 듣는 이웃을 저주하거나 해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다섯째로, 우리는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미워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여섯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짓되이 헐뜯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남의 명예와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참으로 나쁜 일이다. 일곱째로, 우리는 이웃을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책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죽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여덟째로, 우리는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움은 이미 마음으로 그를 죽인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아홉째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보면 지적하고 책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방관하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열째로,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한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열한째로, 우리는 이웃을 원망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정해야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부족을 반성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말고 담대히 대처해야 한다. 열두째로, 우리는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상의 법들은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법들이며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지켜야 할 생활 법칙이다.

[책안내] ●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233쪽, 2,000원.
● 김효성, 열왕기 강해, 217쪽, 2,000원.
● 김효성, 잠언 강해, 제2판, 624쪽, 4,000원.